

-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336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4장 1~12절(신191)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430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8월 2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금나라와 원나라 시대의, 희곡 및 문헌 속 대사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져 쓰이게 된 사자성어입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는 한자로, ‘좋은 호’, ‘일 사’, ‘많을 다’, ‘마귀 마’ 자를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 좋은 일에는, 시련이 함께 온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설교의 요약>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0여 년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앓은뱅이, 매일마다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던 앓은뱅이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줍니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고, 베드로가, 자신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다음날까지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을 세우고 심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의 질문을 받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천성 병자를 대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착한 일을 행했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행할 때, 마귀, 즉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착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만 들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모두가 좋아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비난이 있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착한 일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칭찬과 존경이 돌아가는 일이, 저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전통의 수호자라고 믿었습니다.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반대한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자들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귀족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 온 왕이요 구원자이다, 이런 이야기가, 로마 관리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내세와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현세의 문제에만, 편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부와 기득권과 편안한 삶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놓치기 싫어,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들이 사도들을 반대한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만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자처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은,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는, 구약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죽은 후,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경우를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 안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사탄의 방해와 공격에 꺾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기〉

1. 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2. 내가 가장 중요하고 삶의 비중을 높이 두는 곳은 현실의 일인가요, 천국의 일인가요?

〈기도〉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앓은뱅이를 고쳐준, 착한 일을 행했지만, 비난을 받고, 시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베드로 사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박수와 칭찬과 존경과 영광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소유, 기득권, 삶의 편안함, 내 고집, 내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